

‘친환경’ 용어 본말 전도 ‘일반=오염’ 인식 안될 말

‘선진국’ 맹목적 친환경농산물 생산 치중 안해, 생산이력제로 신뢰 얻어
농약안전사용기준·사용법 지키면 친환경농업, 넓은 개념으로 해석해야

환 경(環境)이나, 생산성(生産性)이나?
이 말은 환경보존과 생산성의 딜레마
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환경보호론자들은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인 면에서 매우 유리하나 증산론자들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물의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전국의 소나무를 강타하고 있는 솔잎혹파리를 사멸시키고 발생력을 억제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면서 100% 완벽한 환경보존이란 애시 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어에 보면, 근본이 바로서야 길이 열린다(本立而道生)는 말이 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환경농업의 근본이 무엇이나 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본이 바로 정체성이다. 정체성(正體性)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본디의 참 모습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본디의 참 모습을 밝혀 본디는 취지에서 친환경

농업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소비자, 친환경농산물제도 이해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농업이란 용어는 친환경농업육성법상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친환경농업이란 용어를 살펴보자. 어디까지가 친환경농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의는 최소한의 것(핵심적 정체성)이며,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가능성이 있는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현실적으로 보다 폭넓은 개념(확장된 정체성)이 선행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웰빙(well-being)바람을 타고 떠나없이 완벽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품을 찾는다. 정부는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현재 3%에서 2010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맹목적으로 치중하지는 않는다. 대신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농업인이 상호 협력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친환경농업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농약과 화학비료만 쓰지 않으면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언제부터가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농업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많아질수록 비료나 농약이 마치 독극물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이라는 용어의 특성상 친환경이 아닌 것은 무조건 ‘비 친환경’으로 매도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농업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일반 농산물은 마치 공해농산물 또는 오염농산물로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농사를 짓는 90% 이상의 농업인이 공해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매도된다면 우리 일반농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소비자도 정부가 정해 놓은 친환경농산물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 만병통치약’ 부적절

친환경농산물은 1980년대 일부 농업단체에서 생산하여 극소수의 소비자와 직거래하며 시작하였으나 일반 소비자



의 신뢰를 얻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199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당시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친환경농업은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1998년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축사료첨가제의 적절한 사용 등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육성법’을 제정, 친환경농산물표시신고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생산 기술 등 검증되지 않은 농가의 무분별한 신고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2003년부터 친환경농산물신고제를 친환경농산물인증제로 다시 전환, 생산방법과 사용자제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전환기유기농산물은 1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대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소비량의 1/3이하만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로 토양재배와 양액재배가 있다. 양액재배는 작물이 필요로 하

는 영양소를 물에 희석하여 그물에서 작물을 재배한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고 유기합성농약 살포 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하되,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이다. 이런 친환경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흙살림, 한국유기농협회 등 15개의 민간인증기관이 철저히 검증한 후 인증을 승인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을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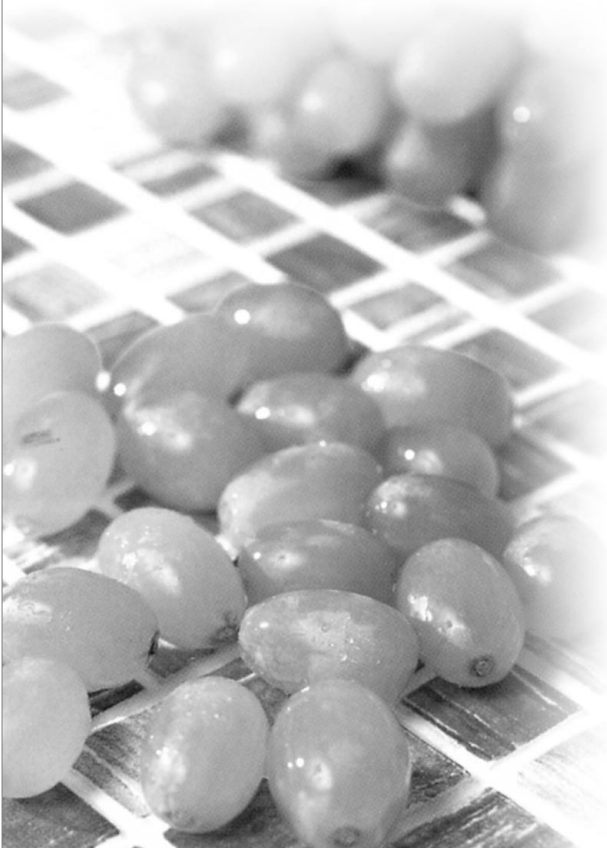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됨은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국제적인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상태를 알아보자. 아직까지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40%만이 친환경농산물 개념을 자신 있게 알고 있다. 22%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마크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며, 28%정도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실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가 많다보니 70%정도의 소비자들은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매장에서라도 반드시 구매하겠다는 적극적인 신뢰비율은 8%에 불과하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높아 불만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격이 뚝 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친환경을 의심하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비중이 23.5%나 된다. 어느 정도 가격차를 인증의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 친환경 농산물의 국내 시장 진입이 우리 농업에 위협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46%에 이르며, 위협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이 외국 것에 비해 40%정도 비쌀 경우 55%의 소비자가 외국산을 구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지만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소비자들은 외국과 우리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가격차이가 나지 않도록 꾸준한 생산비용의 절감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몇 가지 인식과 행태를 종합해보면,



친환경 농업이 농업발전에 있어서 '만병통치약' 처럼 인식되는 정서는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시장경쟁력 확보’ 위해 중지 모아야

이제는 친환경농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올라설 때가 됐다. 왜냐하면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 사용에 의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도 제철농산물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제철 과채류나 이른 과채류나 주로 먹는 기간은 두어 달로 비슷하다. 먼저 먹는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또 다른 점은 제철이 아니라서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사실 뿐이다. 그러나 그 비싼 가격이 만들어 지도록 키우는데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연료로 키우는 이른 과채류는 환경을 파괴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일조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매립 할 수 없게 되었다.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원의 약 70% 정도가 가정이다. 그럼에도 전체 주택의 52%가 공동주택인 관계로 음식물류 쓰레기의 재활용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가로운 농촌의 들녘을 따라 걷노라면 농약냄새와 인분(人糞)냄새가 코끝을 진동하지만, 알고 보면 냄새나는 상하수와 부족한 녹지 공간, 과밀한 주택 같은 일그러진 도시생태환경에 비하면 농촌의 모든 상황은 정겹고 환경친화(環境親和)적인 삶 바로 그 자체다.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

되 어디까지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환경친화 개념이 근래 들어 서양학계에서 제시되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같은 관념이 일상 생활화 되어 내려오고 있었다.

사실 농약도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자재중의 하나다. 그러나 농약은 농산물 생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병해충 및 잡초 등의 생물을 방제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이므로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면 약물중독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약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면 농작물에 약해를 일으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농약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사용 지침을 준수하여 잘만 사용하면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여 준다. 이처럼 최근 농약 사용이 일반화되어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농약의 나쁜 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농약 자체의 유익성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환경(環境)이나, 생산성(生産性)이라는 농업발전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환경과 생산성과의 보완 결합을 통해 어떻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중지(衆智)를 모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Y